

## 〈황주문생록〉의 서사적 특징

고은임\* · 박재연\*\*

### 차 례

- |             |                 |
|-------------|-----------------|
| I. 머리말      | 1. 전대 소설 화소의 수용 |
| II. 축약의 가능성 | 2. 이색적 동물담의 출현  |
| III. 서사적 특징 | IV. 맺음말         |

### 국문초록

본고는 선문대 총서로 소개된 이후 아직 학계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작품인 〈황주문생록〉의 형식적, 내용적 면모를 소개하고 서사의 특징적 국면에 대해 논의하였다. 1920년에 필사되었다고 추정되는 이 작품은 그 책제목이 나온 서목이나 관계 기록이 발견된 바 없고, 유일하게 필사본 한 책만이 전하고 있어 작품의 창작, 향유 시기, 향유층 등 작품 외적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작품 내의 정보들에 집중하여 이 작품의 특징과 의미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우선 이 책이 모본을 축약하는 방식으로 필사되었다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 작품은 사건의 전개가 빠르고 작품 분량에 비해 많은 화소로 구성되어 있는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선문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교신저자

데 여러 군데에서 생략된 부분이 있는바 모본의 내용이 온전히 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서사적 특징에 대해 살폈는데 먼저 전대 다양한 장르 소설들의 화소가 어떻게 습합되었는지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여성영웅소설이라 할 수 있는데 애정소설, 가문소설과의 관련성을 보이며 각각의 화소가 통속적인 방식으로 축조되어 있다. 다음으로 설화적 화소, 즉 고래 화소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작품에는 고전소설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고래가 출현하여 여주인공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고래와 여주인공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龍馬 설화의 ‘말과 장군의 관계’와 유사한바, 이 작품은 동물을 인간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전통적 동물관을 잇는 가운데 신비롭고 역동적인 고래의 활약을 흥미롭게 서술하여 작품의 오락성을 강화했다.

주제어 : 황주문생록, 여성영웅소설, 가문소설, 애정소설, 구운몽, 동물담, 고래, 용마설화

## I. 머리말

<황주문생록>은 한 책의 한글필사본 소설로서 최근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한글 생활사 자료총서 가운데 하나로 출판되면서 그 존재가 알려진 작품이다.<sup>1)</sup> 그 이전에는 학계에 제목이 보고되거나 작품이 소개된 바가 없으며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에 소장된 것이 현전 유일본이다. 선문대 총서로 소개된 이후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작품으로 이에 보고는 이 작품의 형식적, 내용적 면모를 소개하고 서사

1) 이 작품은 2013년 학교방에서 영인·교주본이 출판된바(박재연 외, 『장칠선전·황주문생록·나나봉전』, 학교방, 2013.), 필자는 책의 출판을 위한 해제 작업에 참여하며 이 작품을 처음 접하였다. 본 논문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주신 선문대학교 박재연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의 특징적 국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서지사항과 작품 경계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 책이 모본을 축약하는 방식으로 필사되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사건 전개가 빠르고 작품 분량에 비해 많은 화소로 서사가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서사 장면이나 대화의 내용이 생략되거나, 서술 도중 문장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야기 단락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앞에서의 중요한 암시가 뒷부분에서 간략하게 처리되는가 하면, 그 역할이 미미하여 서사적 필요가 의문되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는 등 모본의 내용이 온전히 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장에서는 이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다음으로 <황주문생록>의 서사적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작품을 구성하는 화소들은 애정소설, 국문장편소설, 영웅소설과 같이 다양한 소설 장르에서 익히 보았던 것들인데, 이 작품은 다양한 장르의 소설들에서 흥미성 강한 화소들이 선택되어 통속적인 서사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작품 후반부에는 고전 소설에서 자주 볼 수 없는 이색적 동물인 고래가 등장하여 일대 활약을 벌인다. 이 부분은 설화적 동물담의 전통을 잇는바, 동물담이 이 서사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황주문생록>은 그 책제목이 나온 서목이나 관계 기록이 발견된 바 없고, 유일하게 필사본 한 책만이 전하고 있어 작품의 창작, 향유 시기, 향유층 등 작품 외적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이 작품을 본격적으로 처음 소개하는 장으로서 우선 작품 내의 정보들에 집중하여 이 작품의 특징과 의미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 II. 축약의 가능성

<황주문생록>의 책 크기는 21×20cm이고, 전체 108장으로 글자수는

때면 11행 20자 내외이다. 작품 중간에 권수가 나뉘는 부분이 보이지 않아 1권 1책의 형태로 필사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소설이 시작하는 첫면에 “황주문신록 권지상이라”는 표기가 있고, 108장의 분량은 한권의 책으로서 비교적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군데군데 책이 찢겨져 있는 상태이므로 책 중간 권두의 부분이 일실된 것일 수도 있어 2권 내지 3권으로의 분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필사체는 아주 잘 쓴 글씨는 아니나 비교적 정자체에 가깝고, 간간이 한자가 혼용된 부분이 있는데 “帳약의 너어 두고”, “갈춤秋氣”(43a), “문신이 小諸얼 일코”(43b)와 같이 의미와 관계없는 한자가 음차되어 사용된 경우가 많다. 작품 끝에는 “庚申 十二月 十五日 謄書終”이라는 필사기가 있는데 작품의 내용이나 국한문혼용의 필사 상태를 볼 때 庚申은 1920년을 말하는 듯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책의 상태가 좋지 않고, 엉뚱한 한자가 음차되거나, 여러 번 서술되는 등장인물의 나이가 각기 다르게 적혀있는 등의 사실 정보에 혼착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책의 필사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작품의 서사전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명문가 후손인 문통은 황주 산중에 은거하며 살다가 늦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문생]은 어려서부터 영특했다. 문생이 10여세가 될 무렵 부모가 모두 죽고 문생은 비복의 도움으로 살다가 19세가 되자 세상에 나갈 뜻을 품는다.
2. 소주로 간 문생은 주막을 하는 시삼냥의 도움으로 그곳에 거처하게 되는데 天定의 꿈을 얻어 그 마을 유제독의 딸 유채봉과 시를 주고 받으며 인연을 맺는다. 그런데 만남을 이루려던 찰나 담을 넘던 문생이 실족사하고 그러자 채봉이 殉節한다.
3. 유부에서 문생과 채봉의 시신을 몰래 勸葬하려 관을 먼 곳으로 옮기게 하는데 옮겨지는 도중 문생과 채봉이 재생한다. 그들은 황주로 가려 하나 황주에서 도적떼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황성으로 발길을 옮긴다.
4. 성문에 다다를 무렵 어느 주막에서 벼슬을 얻어 황성에 올라가는

유제독 부부를 우연히 만나지만 그들의 행실이 가문의 수치라 여긴 유제독에 의해 쫓겨나간다.

5. 문생과 채봉은 황성에 도착하여 방황하다 옥포동 당집에서 우연히 시삼랑을 만나 그간의 회포를 푸는데 이때 채봉은 시삼랑에게 문생을 맡긴 뒤 자신의 행실을 자책하며 바다에 투신한다.

6. 채봉은 본디 용녀로 천상의 문생과 희롱하다 인세에 내쳐진 것이었는데, 바다에 투신하자 용궁으로 안내되어 전생의 일을 알게 된다. 또한 용왕의 명으로 도를 터득하고 각종 병법을 익혀 북호의 침입을 대비하게 된다. 한편 문생은 채봉을 잃어 슬퍼하다 시삼랑의 권면과 보살핌으로 과거공부에 집중한다.

7. 시삼랑의 딸 경난은 황성 갑부 유승의 아들과 혼인한 뒤 병이 들어 친정에 머물게 된다. 이때 아내 경난의 병구완을 위해 온 유생이 문생과 만난다. 유생[유운혜]은 본디 여자로 아버지에 의해 아들로 길러져 경난과 동성혼인을 했던 것인데, 문생은 그 정체를 알고 유운혜와 동침한다.

8. 유운혜의 비밀이 모두 밝혀지자 유승은 운혜를 문생에게 시집보내고 이에 난처해진 시삼랑은 경난에게 다른 혼처를 찾아주려 하나 경난은 운혜와 혼인했으니 그를 따라 함께 문생을 받들겠다고 자처한다.

9. 문생이 과거급제 한다. 북호가 침입하자 문생이 유제독을 도와 북호와 싸운다. 문생 군대의 세가 기울 때 마침 용궁과 해용암에서 도술을 익히며 은신 중이었던 채봉이 男裝으로 참전하여 용궁에서 데려온 고래를 타고 북호를 물리친다. 승전한 이후 채봉이 문생과 아버지 유제독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린다.

10. 북호의 왕자 호달천을 잡아 황제 앞에 나온 채봉은 자신이 여자임을 밝혀 용서를 구한다. 황제는 채봉의 공적을 치하하며 채봉 대신 남편 문생을 연왕으로 봉하고 전공이 큰 고래에게도 합당한 상을 내린다. 채봉, 경난, 운혜 세 여인이 문생과 함께 연국에서 대대손손 행복하게 지낸다.

전체 내용은 문생<sup>2)</sup>의 일대기 형식으로 전개되며 그의 혼사와 출세가 서사의 중심에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그 분량에 비해 많은 화소로 이

2) 문생의 이름이 소개된 부분이 손상되어 문생의 이름이나 자는 알 수 없고 이후 계속 문생으로 지칭된다.

뤄져 있다. 문생과 유채봉의 만남과 죽음, 재생과 이별, 이후 이뤄지는 문생의 혼사, 문생의 출사와 전투 그리고 채봉의 용궁 생활과 전투, 戰勝 이후의 안정과 복록으로 이어지는 파란만장한 문생의 일대기가 108장의 한 책에 담겨 있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나 장편소설에서 익숙하게 보이는 화소가 삽입되어 있지만 장편소설의 서사적 특징인 장면 묘사나 인물의 심리묘사 등이 소략된 채 사건 중심으로 서사가 빠르게 전개된다.

그런데 <황주문생록>이란 작품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현전 필시본의 특징을 유의해 봐야 한다. 작품 내용이 생략되거나 축약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 문생이 홀로 밤을 지낼새 우연히 한 꿈을 꾸니 생의 몸이 화하여 봉(鳳)이 되어 후원 죽림(竹林)을 찾아 가다가 한 곳을 바라보니 주란화각(朱欄畫閣)이 반공(半空)에 솟았으니 광채 찬란하고 채색 단정한 난간에 수정(水晶) 주렴(珠簾)을 드렸으니 은은한 풍경 소리 객의 회포를 격동하는지라. 낭중(囊中)으로 필묵(筆墨)을 내어 양유가(楊柳歌) 일편과 봉황시(鳳凰詩) 한 수를 지어 쇄금홍전지에 써 누각 동편 노송(老松) 가지에 걸고 사처로 돌아오니라.<sup>3)</sup>

인용문은 문생이 꿈에서 봉으로 변하여 유채봉이 있는 누각을 구경하다 회포가 일어 <楊柳歌>와 <鳳凰詩>를 쓰고 노송 가지에 걸어 돌아 온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어디까지가 꿈인지 서술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만 보면 시편을 노송 가지에 걸고 돌아오는 것까지 꿈이라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만 이후 채봉이 노송 가지에 걸린 시편을 얻어 보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 바로 뒤에는 문생이 누각에서 돌아와 시삼랑에게 누각에 대해 묻는 장면이 이어지는바 그것은 모두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일이다. 즉 뒤의 서사와 연결하여 이해하려면 문생이 鳳

3) <황주문생록>, 8b~9a면(원문). 이후 면수만 표기. 현대역은 필자.

으로 화하여 朱欄畫閣을 보고 잠에서 깨어나 실제로 그곳에 간 뒤 시편을 쓰고 돌아온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시 말해 꿈의 경계에 대한 서술이 생략된 것이다.

한편 문장이 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② 소저 그 글을 보고 심중(心中)의 자연 송구(悚懼)하여 이 글도 고이하고 또한 천정(天定)을 어기오면 나돌여 양화(殃禍) 있을까 하여 그 글을 깊이 감추고 허실(虛實)을 살피더니, 차설 문생이 사처로 돌아와 시삼랑 다려 물어 가로대<sup>4)</sup>

③ 어떠한 소년 부인이 약차 ” ” 하오기에 가까이 살펴본즉 정녕한 소저는 이미 없는 지 수삭(數朔)이라 어찌 회생하여 이에 왔사올리잇가마는 세상의 간혹 같은 사람이 있다하는데 어찌 그렇듯 같은 사람 또 어디 있으리오<sup>5)</sup>

④ 호달전은 둔갑하여 유원수[유채봉]를 잡으려 하였더니 유원수 간 곳 없고 독한 안개와 구름에 싸여 원수를 찾아 진에 들어가, 호진군(胡陣軍) 중군장(中軍將) 청을 사로잡아 앞세우고 문도독과 유제독 계신 데를 찾아가니 도독과 제독이 쇠사슬로 목을 얹고 수족을 철쇄(鐵鎖)하였거늘 앞에 나가 맨 것을 끄르고 호진 전마(戰馬) 두 필을 빼앗아 타라 한 데<sup>6)</sup>

②에서는 소저가 시편을 감춰 살피는 장면에 대한 서술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차설”로 시작되며 다른 장면으로 이어진다. 시편을 보고 반응하는 소저의 행동이나 말, 심리 서술이 이어져야 할 부분인데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③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유채봉을 주점에서 우연히 본 시

4) 10b면.

5) 27a면.

6) 90b면.

비가 채봉의 어머니 유부인에게 전하는 말인데, 어떤 소년 부인이 있어 가까이 가보니 정녕 소저였고, 그런데 소저가 이미 죽은 지 여러 달이니 이상한 일이라는 내용의 전언이다. 여기서 “정녕한”과 “소저는” 사이를 이어줄 문맥이 필요하다. ④에서는 호달천이 유채봉을 찾아 집에 들어간다는 구절에서 바로 유채봉이 胡陣에서 문도독과 유제독을 찾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간 내용이 빠진 것이다. 인용한 것 이외에도 이렇게 문장이 문맥상 완성되지 못하고 생략되거나 축약된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여러 군데 있다.

다음으로는 서사 앞부분에 마련된 암시가 뒷부분에서 제대로 서술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용왕이 채봉에게 北胡의 침입으로부터 명나라를 지키라는 명을 내리며 각종 무기와 술법을 하사하는데 그 가운데 북호왕자 호달천에 대해 말하면서 “그 사람 좌편은 범치 말라”고 주의를 준다. 이러한 암시는 앞으로 전개될 전투 장면에서 호달천의 좌편과 관련한 흥미로운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후 전투 장면에서 “호달천은 본래 좌편(左便)의 조화(造化)가 많은지라. 명장(明將)은 한사(限死)하고 좌편으로 세우려한즉 유봉은 나는 듯이 우편(右便)으로 서며 벽력되 두루는 곳에 벽력이 일어”<sup>7)</sup>났다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언급될 뿐이다. 이후 ‘호달천의 좌편’에 관련된 장면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용왕이 따로 당부할 정도로 중요하게 언급된 내용이 후반부 서사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한편 <조웅전>에도 이와 비슷하게 도사가 조웅에게 적장의 왼편을 조심하라는 봉서를 전하고 이 조언이 조웅에게 큰 도움을 주는 대목이 나온다.<sup>8)</sup> 그런데 <조웅전>에서는 조웅이 적장 삼대의 왼편을 공략하는

7) 85a면.

8) “또한 그 봉서(封書)를 떼어 보니 그 글에 하였으되, ‘일대의 진중에는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대의 진에는 백마혈인검(白馬血印劍)을 사용할 것이며, 귀신 쫓는 주문(呪文)을 외우고, 또 삼대의 진에는 삼대의 왼편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이현홍 역, 『조웅전』, 『한국고전문학전집 23』,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6, 265면.)

장면이 상세하게 묘사되며, 전투 후 죽은 삼대의 왼팔 밑에 날개가 돌아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왼편’의 비밀이 풀린다. 이와 같이 <조웅전>과 비교해 볼 때도 <황주문생록>의 전투 장면에서 호달천의 좌편에 관한 이야기는 매우 소략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측면 역시 관련 서사가 축약된 결과일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등장인물의 역할이 축소된 경우가 있다. 특히 문생의 스승으로 나오는 인물 당처사[당복용]의 경우 그 인물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가 소략한데다가 서사에서의 그의 역할 역시 매우 미미하여 이 필사본만 놓고 볼 때 왜 등장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⑤ 그 중의 한 노인이 생을 자세히 보다가 언덕에 나서며 생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네 나를 아느냐” 하거늘 생이 자세히 보니 어려서 수학하던 선생이어늘, 생이 반가워 그 사이 집 떠나 강산 구경하던 말과 유상서의 사위된 말이며 중로(中路)에 도적 만난 말이며 도적에게 쫓겨 어 이에 온 말을 대강 설화(說話)하고 한가지 배에 올라갈새, 여러 날만의 성문관에 다다라 배를 내린지라. 생은 소저로 하여금 같이 가지 못하고 선생과 여러 사람을 먼저 작별하고 소저로 더불어 천천히 오다가<sup>9)</sup>

⑥ 본관(本官)에게 지우하여 어려서 수학하던 선생을 찾으라 하였더니, 본관이 각 면에 전령(傳令)하여 속속히 내달는지라. 원래 선생은 황주 보산면 수석동 당처사라. 문학이 유여(裕餘)한고로 근읍(近邑) 선비들이 수학하는 자 수백 명이라. (중략) 소신의 수학하던 선생 당복용이라한 사람이 황주의 있사온데 학문 도덕과 지략(智略) 신공(神功)이 과연 초인(超人)하기로 신이 권하여 황성으로 오사한즉 나이 늦었노라 하고 듣지 않사옵고, 약차 “ ” 히 고사(固辭)하여 언사(言辭) 성대(盛大)하옵기로 다시 청치 못하고 온 연고(緣故)를 주달(奏達)한데 상이 또한 늙음을 한탄하시고 특별이 태자사부(太子師傅)를 제수하시고 춘추(春秋)에 한번 씩 올라 와 경연시각만 구경만 하라 하시고 만종록(萬鍾祿)을 먹게 하시고<sup>10)</sup>

9) 24b면.

⑤에서 문생과 유채봉이 희생하여 도둑에 쫓기며 황성으로 가는 길에 당처사를 만난다. 이 장면에서 당처사는 작품에 처음 등장하게 하게 되는데, 유년시절 문생의 스승으로 소개가 되면서 문생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후 당처사는 문생이 과거급제 후 소분을 위해 황주로 내려갔을 때 다시한번 등장할 뿐이다.[인용문 ⑥] 황주에서 당처사를 찾은 문생은 그에게 벼슬길을 권하나 그는 노년임을 들어 이를 거절하고, 이에 문생이 황제에게 당처사를 천거하여 그에게 태자사부를 제수하게 한다. 당처사의 등장은 이 두 장면에서만 보이는데, 이를 보면 그가 문생과 어떤 관계이며 도대체 왜 이 소설에 등장했는지 그 내막을 알 수 없다. 유년시절 문생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에 대한 서술도 없고, 태자사부 제수 후 어떤 활약을 펼치는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위 두 장면에서만 등장하고 있어 기실 당처사 관련 단락이 전체 서사에서 생략된다 하더라도 서사전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 작품 내 서사적 역할이 미미하다. 일반적으로 유년시절 문생에게 큰 은혜를 베푼 은사이기 때문에 금의환향한 문생이 은혜를 갚는다는 설정이거나, 혹은 문생의 出仕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되거나 하는 등의 역할이 기대되나, 당처사는 작품 전체의 서사나 등장인물과 긴밀하게 관련되지 않은 채 전술한 두 장면에서만 잠시 등장하고 사라질 뿐이다. 이러한 점은 작가의 창작 역량이 미숙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앞에서 서술한 사항들과 함께 고려해볼 때 필사과정에서 그 인물 관련 내용이 축약된 결과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필사과정에서 모본이 축약되는 경우는 많다. 대표적인 예가 <천수석>이나 <김희경전>과 같은 소설이라 할 수 있는데, 현전하는 <천수석>은 여러 연구에서 모본의 축약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오다가 <천수석>에 비해 서사가 대폭 확장된 7권 7책의 낙질 이본 <천생석>이 발굴됨에 따라 축약의 가능성이 확증되었고 그 구체적 양상이 밝혀진 바

---

10) 72b~74a면.

있다.<sup>11)</sup> <김희경전>은 그간의 이본 연구에서 필사본 간의 축약, 첨가 양상, 이후 활자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대폭적인 축약 사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sup>12)</sup> 이 소설들은 축약본과 함께, 낙질일지라도 모본에 가까운 책이 함께 현전하고 있어 그 구체적 내용 비교가 가능하며 그러한 비교를 통해 축약의 양상이 밝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유일본만이 전하는 <황주문생록>의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나 근거 자료가 없는 까닭에 축약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는 없고 그 정도 역시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다. 게다가 본고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필사과정에서 빚어진 오류가 아니라 창작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할 수 없고 축약이 있었다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겠지만 모본에 대한 상상력도 발휘해가며 작품에 접근해야 그 실상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Ⅲ. 서사적 특징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 소설들은 애정소설, 영웅소설, 가문소설 등 일정한 양식적 특징에 따라 여러 가지의 하위 갈래로 나뉜다. 특히 한글소설은 작가 개인에 따른 독특한 작가의식이 표현되기보다 장르적 유형성에 따라 각 장르의 독자층에게 통용되는 수준에서 작품이 전개되는 경향이 강하다. 소설 장르에 따라 독자층, 의식지향, 서사문법, 문체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어느 정도

11) 송성욱, 「泉水石의 텍스트 결함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1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 채윤미, 「천수석에 나타난 영웅의 문제적 형상」, 『국문학연구』제27호, 국문학회, 2013.

12) 정준식, 「김희경전의 이본 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53, 어문연구학회, 2007. ; 강승묵, 「<김희경전> 異本の 존재양상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3.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모든 문학 장르가 그러하듯 조선의 소설 하위 장르 내부에서도 각 장르는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장르와 끊임 없이 교섭하고 운동하며 발전해왔다. 초기에 각기 다른 담당층에 의해 창작, 향유된 소설 유형들은 자신의 유형적 특징을 굳혀가고, 한편 일정한 유형성을 획득한 장르들은 다시 서로 교합하며 기존의 자기 장르 관습에서 조금씩 벗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예컨대 애정전기소설은 장편소설 창작 과정에 영향을 끼쳤고, 소위 가문소설이라 불리는 국문장편소설과 영웅소설 역시 교섭하며 각 장르와 각 작품의 내연을 확장해갔다.<sup>13)</sup> 각 장르의 유형적 특징이 장르 내에서 어느 정도 공유되고 독자들에게도 익숙해질 무렵에는 장르 간 습합 현상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고 보이는데, 기본적인 서사들은 <구운몽>에서 왔으나 영웅소설과 교섭 양상이 선명하게 발견되는 <옥루몽>이나<sup>14)</sup> 가문소설을 포함한 장편소설사의 전통 속에 여성영웅소설이 습합한 <부장양문록>이<sup>15)</sup>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황주문생록>은 문생의 혼사와 군담 위주의 일대기가 중심 내용으로 필사시기가 20세기 초로 추정되며 원작의 창작 시기 역시 이르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애정소설과 여성영웅소설 장르가 습합된 양상을 보인다. 애정소설, 국문장편소설, 여성영웅소설의 화소 그리고 설화적 화소까지 더불어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바 본 장에서는 여러 장르의 화소들이 이 작품에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축조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3) 박일용,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48~89면. ; 전성운, 『조선후기 장편국문소설의 조망』, 보고서, 2002, 175면.

14) 김정숙, 『조선후기 재자가인소설과 통속적 한문소설』, 보고서, 2006, 175~7면.

15)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제 19집, 2001년, 224면.

### 1. 전대 소설 화소의 수용

<황주문생록>은 다양한 소설 유형들의 흥미로운 화소들로 직조된 것으로 보인다. 문생이 세상에 나와 세 여인과 인연을 맺고 국가에 공업을 쌓는 이야기가 대강의 줄거리를 이루고 있는 한편 문생의 첫 연인 유채봉의 여성영웅으로서의 변신과 활약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그런데 그 안에는 혼전 연애, 男服改着의 문제, 여성의 武功, 동성혼 등과 관련한 흥미롭지만 때로는 문제적인 화소들이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화소들이 그 문예성이나 문제성은 약화된 채 유형화되어 흥미 요소 중심으로 직조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중심 화소들이 어떻게 전체서사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생은 10여세 어린 시절 양친을 모두 여의고 종복에 의탁하여 공부에 힘쓰다 19세에 이르러 세상에 나아갈 뜻을 정하고 길을 떠난다. 失父母는 대개 영웅소설 주동인물의 삶에서 자주 나타난다. 부모가 죽거나 정적의 모함으로 가족이 이산한 가운데 어린 영웅은 부모를 위한 복수를 다짐하거나 가문 회복 의지를 다지면서 비범한 재능을 연마하며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애정소설 <구운몽>에서도 양소유의 아버지가 신선이 되어 인세를 떠나는데, 가부장권이 강했던 조선시대 부모 특히 아버지의 부재는 주동인물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sup>16)</sup> <황주문생록>의 문생 역시 부모의 부재로 자유로이 流離하면서 연애와 혼인, 출세를 이루는데 자유로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점이나, 유채봉과 인연을 이루는 작품 초반의 설정은 <구운몽>과 유사하다.

문생은 蘇州에 이르러 처음 들린 주점 주인 시삼량의 도움으로 그곳에 머물기로 하고 그날 밤 꿈을 꾸게 된다.<sup>17)</sup> 꿈에서 鳳으로 화하여 어

16) 정병설, 『구운몽도』, 문학동네, 2010, 83면.

17) 2장의 인용문<sup>[1]</sup> 참고. 앞에서 언급하였듯 여기서 꿈의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서술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문생이 시를 지어 노승가지에 걸어놓고 온 뒤 유채봉이 시편을 가져간다는 설정이 있어 문생이 시를 쓰고 걸어 놓은 행위는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일로 간주한다.

느 朱欄畫閣에 이르러서 누각을 보고 마음이 동하자 <楊柳歌>와 <鳳凰詩>를 짓고 누각 근처의 노송 가지에 걸어 놓는다. 이때 채봉 역시 누각 근처 노송가지를 희롱하는 용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꿈을 꾸다. 그리고 노송가지에서 문생이 써서 놓아 둔 시편을 발견하여 가져와 읽고 그 시편의 주인이 자신의 天定임을 예감한다. 이 일이 있은 이후 문생은 다시 노송 근처에 가 방황하다 우연히 누각에 나온 채봉과 눈이 마주치게 된다.

생이 또 구경할 차에 유제독 집 누각 근처로 향할새 점점 가까이 가며 연못가의 노송(老松)에 걸었던 시축(詩軸)을 찾은 즉 간 곳이 업는지라. 심중의 고이하여 사면(四面) 방황할 즈음의 누각 위로 인적이 있거늘 노송(老松)을 의지하여 가만히 살펴보니 녹의홍상(綠衣紅裳)한 소저 시비 수인 데리고 누각 난간에 비껴 서서 무엇을 찾는 모양이다가 중계(中階)의 내려 노송 선 담 곁에와 노송가지를 휘여 잡고 연당(蓮塘)을 너머다 보다가 문생과 마주쳐 피차 무료(無聊)하여 문생은 연못가 양류 언덕에 앉아 소저 들어가던 곳을 바라보고 연연불망(戀戀不忘)의 정신이 황홀하여 수중(手中)의 쥐었던 보배를 잃은 사람 같이 정신을 수습치 못하고 묵묵히 앉았더니<sup>18)</sup>

누각 근처에서 남녀가 시를 주고받으며 우연히 시선이 마주쳐 상대에게 반하는 장면은 <구운몽>의 양소와 진채봉의 만남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그 구체적 상황과 형상화 방법은 두 작품이 다르지만, 누각 담장을 사이에 두고 오고간 우연한 눈빛, 시첩 교환에 의한 인연 맺기는 <구운몽>을 닮아있다. 더욱이 <양류가>와 <봉황시>라는 설정은 <구운몽>에서 양소유가 진채봉을 만날 때 읊은 <楊柳詞>와 여장을 하고 정경패를 엿볼 때 부른 <鳳求凰>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킨다.

물론 <양류사>는 일찍이 당나라 전기소설 <楊氏傳>으로부터 연유하였고,<sup>19)</sup> <봉구황>은 탁문군을 매혹시킨 사마상여의 노래이다. <구운

18) 12a~b면.

몽>의 설정들도 전대의 전기소설과 전고의 전통 안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황주문생록>은 전기소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기보다 전기소설 이후 그 영향을 받고 창작되어 널리 읽혔던 <구운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문인 취향성을 지닌 한문 전기와 하층에서 오락 거리로 읽힌 한글소설은 근본적으로 그 향유 기반을 달리하는 까닭에 창작 과정에서의 영향관계가 긴밀하지 않고, <구운몽>과 같이 그 사이를 매개하고 있는 작품들이 다수 존재하는바, 그것과의 관련성을 살피는 것이 작품 실상에 가깝게 접근하는 것일 터이다.<sup>20)</sup> <구운몽>은 전기소설의 전통을 이으며 높은 문예 취향이 발휘된 작품이지만 국한문으로 모두 유통되고 대중 일반에게까지 큰 인기를 끌면서 <옥루몽>, <김희경전> 등 후대 한글소설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 작품으로, <황주문생록> 역시 <구운몽>의 자장 안에 놓여 있다고 보인다. 한편 문생과 유채봉의 인연 장면이 <구운몽>의 영향 하에서 마련되었다고 여겨지지만 그 외피의 설정을 가져왔을 뿐 만남의 순간을 아름답게 하는 섬세한 심리 묘사와 배경 묘사, 한시와 전고를 풍부하게 활용한 우아하고 세련된 문체 등 <구운몽>이 갖추고 있는 풍부한 문예미는 고스란히 빠져있다. 대신 天定을 암시하는 꿈이 두 사람의 인연을 선명하게 각인시키며 서사적 전개를 강조하는 통속 한글소설로의 면모를 강하게 드러낸다.<sup>21)</sup>

19) 박희병, 「한문소설과 국문소설의 관련양상」, 『한국한문학연구』22, 한국한문학회, 1998, 15~19면.

20) 박희병은 전기소설이 국문소설에 끼친 영향과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하며 전기소설이 국문소설에 끼친 영향은 직접적 영향관계와 간접적 영향관계, 두 가지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구운몽』, 『창선감의록』, 『사씨남정기』 이후에 창작된 국문소설들은 이들 작품을 매개로 전기소설의 서사기법이나 문법, 모티프 등을 수용하기도 했으리라 추정된다. 말하자면 ‘간접적’인 수용인 셈이다.” 박희병, 앞의 논문, 30면.

21) 김정숙은 <구운몽>을 재자가인소설의 범주에서 논의하며, 재자가인소설의 개념과 범주를 전기소설의 전통과 중국의 재자가인소설의 영향 하에서 창작된 일군의 한문소설로 설정하면서, 재자가인소설은 전기소설에 비해 천근해지고 통

또한 여성인물 유채봉 역시 구애에 적극적인 진채봉과는 다른 성격의 인물로 등장한다. 문생과 유채봉의 만남은 <구운몽>의 한 장면과 유사한 지점이 있지만, 평생을 의탁할 반려자로 자신에게 맞는知己를 찾는 데 적극적인 진채봉과 달리 유채봉은 낮은 남성과의 만남을 失節이라 여긴다. 때문에 内外의 예를 성실히 따르며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는 채봉과 문생이 만나기 위해서는 夢事를 통한 天定の 암시가 필요했는데, 채봉은 천정의 암시를 받고 누각 근처 노승 가지의 시첩 주인인 문생과 만나면서 천정을 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끝없이 자신의 행동을 회의한다.<sup>22)</sup> 예에 합당한 절차를 갖추지 않고 외간 남자와 대면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런 행위를 失節이라 여기고 실절한 자신을 路柳檣花라 인식하며 끊임없이 괴로워한다. 더욱이 문생이 자신을 만나려다 실족사하자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 여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른다.

소저 얼굴을 숙이고 말하여 왈, “이 지경의 들어 어찌 말씀치 않사오릿가. 규중 여자의 행실을 전폐(全廢)하옵고 노류장화(路柳檣花)의 행을 행하옵다가 무죄히 군자를 상하게 하였사옵기로 세상에 살 뜻이 없사와 죽시 목을 매었삽더니 어찌 된 연고로 이곳의 와 죽은 목숨이 회생하였사오나 무슨 면목으로 군자를 대면하오리까. 사는 게 불가(不可)할 듯하

---

속화되었으나 ‘문인 취향성’을 근본적으로 지닌 작품이며, 따라서 아무리 국문 애정소설이 내용상 재자가인소설과 유사하더라도 미의식의 측면에서 차이를 지니고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김정숙, 『조선후기 재자가인소설과 통속적 한문소설』, 보고사, 2006, 31~51면.

- 22) “소저 내념(內念)에 생각하되 夢事(夢事)도 있거니와 재사가 규중 처녀로 외인(外人) 용모를 대면하였으니 그도 인력(人力)으로는 할 길 없는 일이요, 겸하여 그 사람의 심중에 표와 백년가약(百年佳約) 맺는 글을 우연히 내가 가져다 보았으니 그 역(亦) 천수(天數)라. 양류가(楊柳歌) 봉황시(鳳凰詩)를 도로 퇴면(退面)치 못할 것이요, 그 사람을 유인(誘引)하여 백년언약(百年言約)을 맺자 한즉 그 역(亦) 재사가 규중의 큰 변이 될 것이니 그도 또한 할 수 없고 그러한 연고(緣故)를 부모께 고하자 한즉 부친의 엄숙하신 성품에 필연 큰 죄를 입고 죽기를 면치 못할 뿐 아니라 (후략)” 13b~14a면.

여이다.”<sup>23)</sup>

인용문은 재생한 문생과 채봉이 대화하는 장면으로, 죽음에서 되살아난 문생이 관에 누워있는 채봉에게 그 연유를 묻자 자신이 殉節한 사정에 대해 답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채봉은 “규중 여자의 행실을 전폐(全閉)하고 노류장화(路柳牆花)의 행”동을 했다 말하고 있다. 진채봉이 누각에서 양소유를 보고 먼저 혼약을 제안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태도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운몽>에서 가장 정숙한 인물로 나오는 정경패도 여장한 양소유에게 속아서 그와 마주했던 사실에 분노하긴 하지만 이토록 극단적인 자책은 하지 않는다.<sup>24)</sup> 유채봉은 회생한 이후 문생과 힘겹게 황성에 도달하여 시삼랑을 만난 뒤에 시삼랑에게 문생의 안위를 맡기고 폭포 밑으로 뛰어들어 결국 다시 자결한다. 사대부 여성으로서 失節과 失禮의 과오를 범하고 부모와 가문에 누를 끼쳤다면 스스로를 책한 결과이다.

이처럼 강한 정절 관념과 정숙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점은 <구운몽>과 같은 애정소설이 아니라 대장편 분량으로 가문 내의 이야기를 서사화한 소위 가문소설 유형의 여성인물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면모이다. 애정전기와 같은 한문단편, 혹은 영웅소설이나 애정소설의 짧은 한글단편소설에서 여성들은 외간 남성과의 만남 자체에 대해 이토록 극단적으로 실절의 관념과 직결시키지 않는다. 단편소설들에서는 육례를 갖추지 않고도 심각한 내적 고민 없이 남성과 결연하거나 혼약을 맺는다. 애정전기의 남녀는 짧은 만남과 영원한 이별을 하는바,<sup>25)</sup> 우연히 만나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인연을 맺는 가운데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이 不告

23) 21b~22a면.

24) 양소유의 여장에 속아 그와 마주한 일에 대해 정경패는 “小女之心, 實無所愧, 見欺於人, 一至此, 以是憤恚欲死爾.”라고 말할 뿐 그것을 바로 실절(失節)에 연 결시키지 않는다. 김만중, 정병설 역, 『구운몽』, 문학동네, 2013, 306면.

25)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211면.

而娶에 대한 죄책감을 훨씬 상회한다. 한편 한글단편 즉 <유채벌전>과 같은 영웅소설이나 <숙영낭자전>과 같은 애정소설에서는 남녀의 만남이 천정에 의해 이뤄지고 인물들은 그것을 믿고 따르므로 별다른 회의 없이 인연을 맺는다. 이 작품의 유채봉과 같이 천정임을 알면서도 예를 갖추지 않고 남자를 대면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형상은 상층의 유교적 가부장제가 창작, 향유 기반이었던 가문소설군의 국문장편소설 사대부 여성인물들에 가깝다 하겠다. <옥원재합기연>의 이현영과 <창란호연록>의 한천희는 정혼한 남성들이 혼전에 우연한 자리에서 자신을 희롱하자 失節을 한하며 강물에 투신하고 이러한 행동은 작중 인물과 서술자에 의해 節行으로 간주된다.<sup>26)</sup> 남녀의 만남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가문소설군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면모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작품은 남녀가 만남을 이루는 장면에서 애정전기의 전통을 잇고 있는 <구운몽>의 흥미로운 설정을 취하면서도 여성인물의 성격은 가문소설의 그것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올곧은 정절 관념의 여성상은 자신의 애정 욕망에 적극적이거나 솔직한 애정전기의 여성 형상에 비해 당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장려되었던 바이므로 어떤 독자에게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것이다.<sup>27)</sup>

그런데 폭포 아래로 투신한 이후 다시 회생한 유채봉은 전반부의 정숙한 사대부가 여성의 모습과 상반되는 여성영웅의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본디 옥포용왕의 용녀였던 채봉은 옥포동 폭포에 투신하자 용궁으로 안내되어 용왕을 만난다. 그곳에서 자신이 전생에 용녀였는데 천상의 문생과 희롱한 죄로 인세에 환생하여 그와 부부인연을 맺게 되었다는 사

26) 자세한 내용은 한길연의 『조선후기 대하소설의 다층적 세계』(소명출판, 2009, 137~160면) 참조.

27) 애정 욕망을 표출하는 여성들, 그러한 여성들이 등장하여 자유롭게 연애 하는 서사인 애정전기는 당대 예교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는 저항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임형택의 「전기소설의 연애주제와 <위경천전>」(『동양학』22,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2.) 참조.

실을 알게 되고, 北狄을 소멸하여 大明社稷을 지키라는<sup>28)</sup> 명을 받아 무예와 도술을 익히게 된다. 작품 전반부에서 가문소설의 여성인물들처럼 정절 이념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실절을 고쳐줬던 채봉은, 용궁 경험 이후 남북을 개척하여 공적 활약을 펴는 행위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 기실 이 부분에서 채봉이란 인물의 내면은 거의 조명되지 않고 용왕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채봉의 행동만이 그려진다. 유교적 내외법에 목숨을 걸었던 채봉이 용궁에서의 각성으로 한순간 현세의 규범을 과감히 뛰어넘는 인물이 된 것이다. 이러한 채봉의 모습은 통속적인 여성영웅의 형상이다.

가문소설에서도 방랑길에 오를 경우 男服改着을 하거나, 男裝하여 전쟁에서 무공을 쌓는 여성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러한 행위가 주변인들에게서 혹은 자신에게서 문제시되는 경우가 많다.<sup>29)</sup> 사회적 젠더 규범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혹은 논쟁하는 것인데, 상층의 유교적 규범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소설군의 관습에서는 여성의 남북 개척과 공적 활약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반면 여성영웅소설의 그것은 훨씬 가볍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여성영웅소설은 당대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군담영웅소설의 자장 안에서 흥미 요소로 여성영웅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당대 현실의 성규범을 과감하게 초월하지만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들을 별달리 고민하지 않는다.<sup>30)</sup> 여성영웅소설의 인물들은 당대 현실과 다소 거리가

28) 원문에는 “남만서적[南蠻北狄]을 소멸하고 대명사직(大明社稷)을 붙들게”(41a면)하라는 명을 받는데, 여기서 ‘서적’은 ‘북적(北狄)’의 오기인 듯하고, 서사 후반부에서 명나라를 침공하는 나라로 남만은 등장하지 않고 북호(北胡)가 등장한다.

29) 『유효공선행록』에서는 유연 부인 정씨가 유랑하며 생존을 위해 했던 남북개척이 비난 대상이 되며, 『유씨삼대록』에서 설초벽은 남북개척을 한 전력으로 유씨 집안의 여성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한다.

30) 이지하는 가문소설 유형의 국문장편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인식을 다층적으로 비교하여 그 차이점과 의의에 대해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 이지하, 『18·9

면, 환상의 세계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sup>31)</sup> 이와 같이 전반부에서는 젠더 규범을 고민하던 유채봉이 남성영역에 참여한 이후부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 용궁에서 용왕에게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 듣고, 청립단과 구견단을 먹음으로써 각성하여 범상한 인간 규범에 얽매이지 않게 된 것이겠으나, 이렇게 천정이라는 상황설정으로 간단히 여성 영웅이 탄생하고 활약하는 양상은 역시 통속적 여성영웅소설의 그것과 유사하다 하겠다.

정절과 같은 여성 규범을 강고하게 지키는 여성, 화려한 무공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영웅으로서의 여성, 이 두 인물은 서로 상반되는 지점에 위치해야 할 것 같지만 이 작품에서는 상반되는 두 형상이 유채봉이라는 한 여성에게 수렴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서사의 전후반 인물의 통일성은 고려되지 않았고, 각 캐릭터의 문제적 지점이 소거되었으며, 변화 지점에 대한 내적 요인이 별달리 설명되지 않고 있다. 즉 인물 형상의 완성도나 설득력이 약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후반 각각의 화소는 독자들에게 익숙하고 흥미로운 것으로, 이 소설의 창작 지향점이 작품의 완성도나 문제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독자들의 흥미를 돋우며 원만하게 널리 받아들여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채봉의 투신 이후 문생은 운혜와 경난 두 여인과 인연을 맺는다. 운혜와 경난은 본디 부부였다. 아버지 유승에 의해 외동딸로 태어나 아

---

세기 여성중심적 소설과 여성인식의 다층적 면모』, 『고소설연구』 31집, 한국고소설학회, 2011.

31) 한편 여성영웅소설 가운데는 여성들의 젠더 역할에 대해 진지한 고뇌를 형상화한 작품들도 있다. 『이학사전』이나 『홍계월전』 같은 작품에서는 여성인물의 남성젠더에 대한 욕망이 강하게 드러나고, 『부장양문록』에서는 그러한 욕망과 함께 여성젠더로서의 회한과 고뇌가 짙게 형상화되어 있기도 하다.(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 차이, 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화사연구』 31, 민족문화사학회, 2006.) 그러나 통속적 군담영웅소설의 전통을 잇고 있는 다수의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성영웅은 흥미소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황주문생록>은 통속적 군담영웅소설의 전통 안에 있는 작품이라 판단된다.

들로 키워진 운혜는 경난과 혼인하여 부부로 지내다 친정에서 요양 중인 경난을 보살피러 갔다가 그곳에 머무는 문생을 만나 여인임을 들키고 그와 동침하게 된다. 이 일로 운혜는 문생의 첩이 되고 경난 역시 이미 혼인한 남편 운혜의 뜻을 함께 따르겠노라며 문생의 첩이 된다. 여기서 유운혜도 남복개착하여 남성의 삶을 살아간다. 운혜가 남성젠더의 삶을 살게 된 계기는 독특한데 단지 아들을 바랐던 아버지 유승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소설에서 여성의 남장은 대개 流離할 때 保身을 위한 것이거나 공적 활약을 하기위한 위장으로 시작된다. 이 작품에서처럼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명에 의해 남장을 하고 남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드문 양상으로, 다음의 남복개착에 대한 운혜의 발화에서 그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성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다.

① “나의 부친이 황성 갑부인데 아들 자식 없고 다만 쓰지 못할 나뿐이라. 어려서부터 남복(男服)을 시켜 남자 자식으로 길러 성취(成娶)까지 시켰으나 뒤치를 감당치 못하여 주야(晝夜) 근심으로 지내나니 어찌할 수 없어 아직 이대로 지내더니, 하늘이 밝히사 이 지경에 되었으니, 첩의 어리석은 마음에 천정(天定)인가 싶으니 군자의 넓으신 덕을 입어 두어 주심을 바라옵나이다.”<sup>32)</sup>

② 차설, 삼낭 사위 유량이 본집에 돌아와 아무도 모르게 제 방에 들어가 남복 벗어 버리고 경안의 여복을 내여 입고 금침(衾枕)을 무릅쓰고 누웠더니 그 부모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늦도록 소식 없음을 고히 여겨 제 방문을 열고 살펴보니 이불을 무릅쓰고 누웠거늘 놀래어 그 금침을 거드쳐 본즉 전일 남복은 간데없고 여복을 개착(改着)하고 누워 있거늘 유승이 경황하여 그 연고를 물은데 겨우 눈물을 거두거 일어나 앉으며 말하여 왈, “사람이 세상에 나매 남자 남자요, 여자는 여자라 하는데 어이한 사람이관대 형용(形容)을 변하여 의양(衣樣)을 변하여 남자의 행세를 하다가 하늘이 미워하여 죄 없이 음탕한 사람의 행세가 되니 이러한 원통한 일이 어디 있으리오.” 하며 눈물이 비오듯 하거늘,<sup>33)</sup>

32) 48a~b면.

①은 문생이 운혜의 옷을 벗겨 여자임을 알아내자 운혜가 자신의 사연을 고백하는 대목이고, ②는 문생과 동침한 이후 집으로 돌아가 여복으로 갈아입고 부모에게 문생과의 일을 고하는 장면이다. 이로써 보면 남성젠더로서의 삶은 운혜가 원하던 바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에게 억압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통상 유교적 가부장제는 당대 여성들에게 억압적이었고 따라서 남북개척 화소는 여성들에게 금기였던 남성의 영역을 누리는 환상의 한 요소로 기능했다고 여겨지는데, 지배질서로 상징되는 아버지란 존재가 당대 지배질서의 규범을 離叛하는 한편 지배질서에 억압되었다고 간주되는 여성인 그 딸이 그것을 거부하는 형국은 그것 자체로 독특하다. 그런데 이러한 독특한 상황설정은 서사어나 인물에게나 더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운혜는 아들로의 삶이라는 아버지의 욕망에 순종하고, 취한 여인과 잠자리를 갖고자 하는 문생의 욕망에 순종하는, 自意가 아닌 남성 인물들에 의해 자신의 젠더 역할을 바꾸는 인물로 여성으로서도 혹은 개인으로서도 주체적 의지가 소거된 인물이다.

경난의 경우 운혜를 남성으로 알고 혼인했으나 동침하지 못한 채 지내다 남편이 여성인 사실을 아는데도 이미 六禮를 갖춰 혼인을 했다는 이유로 守節하겠노라 주장한다. 부부라는 미명 하에 운혜와 인간적 유대도 쌓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절하겠다는 것은 시삼랑의 말처럼 수절의 대상이 없는 공허한 節일 뿐이다.<sup>34)</sup> 여기서 운혜와 경난의 동성 부부관계는 <방한립전>이나 <부장양문록>에서처럼 여성들 간의 유대 혹은 공생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sup>35)</sup> 동성혼은 그들 동성부부, 즉 경난

33) 58b면.

34) 수절을 주장하는 경난에게 시삼랑은 “그러한 출가(出嫁)는 열 번 하였을망정 내 집에는 허물 될 게 없으니 그런 시집은 말하지 말라. 또한 수절(守節)도 분수가 있지, 남편 없는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수절(守節)한단 말이나. 그런 것은 수절(守節)도 아니라, 기절(棄節) 만도 못하다.”(54a면)라고 응수한다.

35) 이와 관련해서는 박혜숙의 앞의 논문(177~184면)과 채윤미의 「<부장양문록> 연구-여성인물을 중심으로」(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9, 40~54면) 참조.

과 운혜의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두 여인과 문생을 엮기 위한 서사적 기능으로 작용할 뿐이다. <방한립전>, <부장양문록>과 같은 작품에서 문제적 의미를 가졌던 동성혼이 <황주문생록>에서는 그 의미가 소거되고 동성혼이라는 자극적이고 환상적인 흥미소로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황주문생록>은 문생이 세 여인과 인연을 맺고, 채봉과 함께 전쟁에서 공적을 세워 연왕이 되기까지의 일대기가 다채로운 화소로 전개된 소설이다. 애정소설, 가문소설, 여성영웅소설 등 다양한 소설 유형의 요소들이 습합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이때 문예적 요소, 혹은 진지하고 문제적인 국면들은 사라지고, 그 화소들은 흥미소로서 기능하며 서사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빠르게 진행되는 사건 전개 과정에서 상황 서술이 소홀하며 묘사가 상세하지 않고, 각 인물 형상은 성격화 되지 못한 채 서사 진행 상황에 따라 기능적으로 존재한다. 이처럼 작품의 완성도 측면에서는 공소하고 미숙한 부분이 많다 하겠지만, 역으로 이렇게 익숙하고 단순하게 속화된 화소들의 다채로운 결연과 빠른 서사 전개는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접근성을 높인다. 통속화란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기 쉽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그것은 많은 독자, 특히 초보 독자들에게까지 가독성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황주문생록>은 통속적이고 오락성이 강한 요소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창작된 작품이다.

## 2. 이색적 동물담의 출현

소설은 발생 단계에서부터 설화와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 한국의 초기 소설 양식인 전기소설이 설화를 모태로 하여 새로운 문예 양식을 태동시켰던 것이라는 점은 주지하는바,<sup>36)</sup>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多岐

36) 박희병, 「한국 고전소설의 발생」, 『한국 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34~59면.

하게 발전해간 소설 각 장르 작품들에서 특히 소재적 차원에서의 설화와의 교섭양상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여러 소설 장르에서 흥미로운 화소를 취한 것과 같이, <황주문생록>에는 설화적 화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서사를 추동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서사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 관계 화소가 등장한다. 유채봉이 大明社稷을 지키라는 명을 받들며 용왕에게서 각종 병기를 하사받는데 그때 “천년 묵은 고래”도 함께 받고 이때 받은 고래가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고래가 주동 인물의 원조자로 등장한 경우도 여타의 소설에서 찾아보기 힘들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 고래와 인간[채봉]이 교감하고 있어 더욱 독특한 미감을 선보인다.

고래는 일찍부터 한반도와 친숙한 동물이다. 울산지역의 신석기 유적에서 고래뼈가 다수 발견된 사실이나, 이르면 신석기 시대 늦어도 청동기 시대 그려졌다고 추정되는 울산의 반구대암각화에도 다수의 고래가 등장한다는 점이 이를 증명해준다.<sup>37)</sup> 뿐만 아니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고래 그물에 새우가 걸렸다”와 같이 고래와 관련된 속담이 많고, 『조선왕조실록』에도 고래를 진상한다는 내용과 같은 고래 관련 기사들이 꾸준히 보이는 것을 보면 고래가 역사적으로 줄곧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동물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편 고래는 육지가 아닌 바다가 삶의 터전이고 그 거대한 몸체로 인해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동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그 친숙함과 독특함으로 인해 여러 기록에 고래가 등장해 왔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일찍이 고래와 관련되어 전해지는 대표적인 이야기로 이태백의 騎鯨 古事가 있다.<sup>38)</sup> 이태백이 술에 취한 채 채석강에

37) 고래 유적과 반구대암각화에 대해서는 전호태의 『울산 반구대암각화 연구』(한림출판사, 2013, 25~73면) 참조.

38) 이백이 최종지(崔宗之)와 함께 채석(采石)에서 금릉(金陵)까지 달밤에 배를 타고 갈 적에 시와 술을 한껏 즐기면서 노닐었는데, 뒷사람들이 두보(杜甫)의 “경어를 타고 가는 이백(李白騎鯨魚)”이라는 시구가 있는 것을 빌미로 해서, 이백

노닐다가 물에 빠져 죽은 뒤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로, 이 고사는 이후 동아시아 문학 전통 안에서 이태백을 상징하는 맥락으로 활용되는 典故가 되었고, 또한 ‘騎鯨’은 “고운[최치원]이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孤雲騎鯨飛上天]”<sup>39)</sup> 등과 같이 죽음을 표현하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약용의 <海狼行> 같은 한시나 이식의 <兩西歎>을 비롯한 여러 한시, 최부의 <포해록>과 같은 기행문학 등 한문학에서는 고래를 소재로 한 작품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sup>40)</sup> 구비문학에도 해안가 중심으로 전해지는 고래 관련 설화들이 존재한다.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울산지역에서 많이 전하는 <고래논> 유형인바 고래에 먹혔다가 고래 배를 찢고 살아돌아와 그 고래로 논을 샀다는 내용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도에서 전하는 <고래등에 붙은 전복 탄 해녀>로 바위에 붙은 전복을 탄 해녀가 다음날 그 바위가 없어진 걸 보고 그제서야 그것이 고래의 등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야기이다. 두 가지 모두 해안에서 유래되는 설화로 고래의 거대한 크기로 인해 발생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sup>41)</sup>

그렇다면 고전소설에서는 어떠한가. 고전소설에도 <별주부전>, <서옥기>, <해당향>, <메기장군전> 등 몇몇 작품에서 고래가 등장하고 있다.<sup>42)</sup> 그러나 고래가 등장하는 대부분의 소설은 동물우화소설이라 할 수 있고 동물우화가 아닌 소설들에서 고래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화소설이 아닌 <황주문생록>에 등장하는 “천년 묵은 고래”는

이 술에 만취한 채 채석강에 비친 달을 붙잡으려다 빠져 죽었다고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李白』, 『唐才子傳』) 참고로 당(唐)나라 마존(馬存)의 「연사정(燕思亭)」이란 시에 “이백이 고래 타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니, 강남 땅 풍월이 한가한 지 여러 해라.(李白騎鯨飛上天 江南風月閑多年)”라는 구절이 있다.

39) 서거정 『月影臺』의 시구로 최치원을 기리는 내용이다.

40) 이기대, 「고래의 문학적 형상에 대한 연구-이식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26집, 한국고전문학회, 2012년 참조.

41) 『한국구비문학대계』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참조.

42) 조희웅, 『한국 고전소설 등장인물 사전』1, 지식올만드는지식, 2012, 251면.

소설에의 출현만으로도 독특하다 할 만한데, 그 고래가 채봉의 愛馬 역할을 하며 전쟁터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유원수[유채봉] 외어 왈 “일전에 너를 잡을 것이로대 황명(皇命)을 받잡지 못하고 명색(名色) 없이 인명(人名)을 살해할 수 없어 오늘날까지 용서하였더니 네 그 사이 개과천선(改過遷善)치 못하고 나를 항복(降伏) 고자 하니 가소롭고 불쌍하도다.” 하고 벽력퇴(霹靂退)를 들어 반공(半空)에 휘두르며 바로 호장(胡將)을 취하니 호장이 진언(眞言)을 겸하여 땅을 기우려 산양 강물을 전장으로 대이니 경각에 바다가 되는지라. 유원수의 탄 고래 육지에 있어 물을 오래 보지 못하다가 뜻밖에 대강수를 보고 새로이 생기 등등하여 물결을 따르며 굽을 허우며 강수를 먹으며 호진(胡陣)을 향하여 물을 뿜으니 무궁한 물결은 공중에 솟아나고 고래가 난 대로 쫓아 흘러 적진을 뒤덮으니 호진이 도리어 대환(大患)을 만난지라. 원수 쳐드러가며 벽력퇴를 들어치니 벽력 소리 장졸이 낮을 잃고 고래 고향 소리에 귀가 멍멍한 중에 물결은 반공에 솟아쳐 폭포수가 난리 난 듯하여 군사 물에 빠져 죽는 자 무사한지라. 호달천이 보다가 도리어 어이없어 진언을 겸하여 땅을 도로 기울어 물을 강으로 흘러 빼니 경각에 육지가 되는지라.<sup>43)</sup>

도술을 부려 승기를 잡으려는 胡將을 대적하는 것은 고래이다. 호장이 강물을 끌어와 적진을 휩쓸려 하자 바다 생물인 고래는 그 기회를 타 강물을 자유자재로 이용하여 胡陣을 공격한다. 그리고 이후 전투에 패해 도망치는 호달천을 잡는 것도 고래인데, 호달천이 도망가자 “고래 고향 하매 공중을 솟아쳐 호장의 앞을 가로막고 말 머리를 물어 엮지르니” 호달천이 항복하고 명군에 잡힌다. 고래의 활약으로 전에 볼 수 없었던 신선하고 기이한 장면이 연출되면서 훨씬 역동적이고 환상적인 군담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고래가 일개 미물이 아니라 느끼고 생

43) 89b~90a.

각하며 인간과 교감하는 존재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고래는 문생 일행이 황제에게 상을 받은 뒤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를 열면서 자신을 소외시키자 공적을 인정받겠다는 의사 표시를 적극적으로 한다.

① 이때는 춘삼월 망간(望間)이라. 종일토록 즐기다가 잔치를 파한 후에 연왕[문생]과 왕비[유채봉]와 두 공열부인이 우승상 내외를 모시고 춘흥(春興)을 탐하여 후원 화월루에 올라가니 이윽고 달이 돌아 화월(花月)이 만전(萬全)한지라. 두루 배회하여 풍월(風月)을 구경하더니 어디서 벽력(霹靂) 같은 소리 나며 바람이 일어나 사석(沙石)이 난리난지라. 모두 경황하여 연고를 모르더니 이윽고 고래 공중으로 내려와 전정(前庭)에서 굽을 허위적거리니 보는 사람이 다 질색하는지라. 왕비다려 왈 “내가 잊었도다. 나는 부모와 내외 서로 만나 즐기느라고 말이 전자의 성공한 저 짐승을 오늘 잔치에 잊어 두었도다.” 한테 연왕이 듣고 애연(哀然)하여 왈 “저 짐승을 내 내려가 위로하리라.” 하고 급히 내려가 가까이 서려 한즉 고래 연왕을 보고 갈기를 거스르고 두 눈에서 불덩이 같은 기운이 나와 연왕에게 쏘이며 왕이 정신이 아득한지라. 왕비 보다가 놀래어 난간에 뛰어 내려 고래의 갈기를 더위잡고 경계 왈 “너는 인간 잔치에 참여할 것이 없기로 오늘날 너를 찾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장차 황제에게 품달(稟達)하여 너의 공을 표하리라.” 한테 고래 왕비를 보고 그 제야 머리를 숙여 수중(隨從)하는지라. 과연 왕이 겨우 정신을 차려 즉시 환궁(還宮)할새, 왕비도 돌아보아 왈 “천하 만물이 다 각기 입자 있다 한들 어찌 이 짐승이 이다지 승할 줄 알았으리오. 만일 급히 구하지 않던들 위태할 뻔하였도다.” 한테 왕비 위로 왈 “전하의 장악 부족하심이 아니라 그 본래 수중(水中) 짐승이라. 인간 사람을 싫어하는 연고로 소이다.” 한테 왕이 왕비의 명감(明鑑)함을 탄복하더라.<sup>44)</sup>

② 왕비 즉시 고래를 경계하여 옥포수의 넣어 보낼새, ‘고래 비록 미물이나 지혜 있는지라, 본래 수중의 매인 짐승이나 나와 인연 있어 이 세상에 서로 만나 풍진(風塵) 중 호안(胡雁)을 평정하고 이름을 죽백(竹

44) 101b~102b.

甬)에 올리매 천추(千秋)에 전하니 인간의 일시 사업이나 오늘날 수중으로 너를 보내니 가위 일장춘몽(一場春夢)이어나와 일시 작별하던 게 정 의(情誼)에 결연(缺然)하도다 인간 세월로 육십 년 후면 다시 고국의 반갑게 만나 보리рода.’ 하고 천자의 표문(表文)을 고래 목에 매여주니 고래 갈기를 흔들고 눈을 들어 왕비를 보매 굽을 허우적거리매 가노라 하직하는 모양 보오매 옥포수 물결을 따라 잠기려다 다시 솟아 왕비를 향하여 굽을 허위허위하매 돌아가는 정이 연고불망(緣故不忘)하는 듯한지라. 반향(半响)을 서로 잊지 못하여 하다가 수중(水中)에 잠기고 물소리 뿐이로다. 왕비 바로 궁으로 도라와 연유를 천자에게 고한대 천자 또한 연연이 하시더라.

㉠에서 고래는 戰功을 세운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표하면서도, 설부르게 위로하겠다고 다가오는 연왕에게 거대한 몸집의 압도적인 능력을 보이며 신이한 동물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는다. 인간 세상의 질서와는 무관하다는 듯 용왕의 명으로 섬겼던 유채봉만을 隨從한다. 뿐만 아니라 작품에서 채봉과 고래의 관계가 특별하게 묘사된다. 인용문 ㉠의 채봉이 고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고래는 그러한 채봉을 따르는 장면에서도 그런 점이 나타나지만, 인용문 ㉡의 고래와 채봉의 이별 장면은 둘의 특별한 관계를 더욱 곡진하게 보여준다. 전쟁터를 함께 누비며 승리를 이뤄낸 채봉과 고래는 名將과 忠臣의 관계처럼 전우애를 나눈 듯 서로에게 각별한 정을 품고 있다. 채봉은 고래의 마음을 잘 읽어 그 마음에 흡족하도록 表章해주고 바다로 돌아가는 고래를 보며 서운한 정을 표현한다. 고래 역시 바다로 돌아가면서 몸짓으로 간곡하고 연연한 마음을 표현한다.

동물은 소설에 자주 등장하지만 비중 있게 의미 있는 활약을 하는 경우는 대개 우화소설에서이다. 혹은 <숙향전>의 거북이나 <홍부전>의 제비처럼 은혜 베푼 사람에게 보은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황주문생록>과 가까운 장르인 영웅소설에는 名馬가 자주 등장하지만 말이 주동인물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거나, 서사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경

우는 혼치 않다. 그런데 18세기 향유 기록이 있어 비교적 이른 시기의 영웅소설로 알려진 <소대성전><sup>45)</sup> 완판본에 소대성이 말과 교감하는 대목이 보여 주목된다.

뒤에서 문득 벽력(霹靂) 같은 소리 나거늘, 생이 놀래 문왈, “그 소리 어디서 나나이까?” 노인 왈, “오륙년 전에 우연히 시문(柴門) 밖에 나가다가 어미 잃은 망아지를 얻어 왔더니, 그 망아지 사나워 사람을 헤코저 하매 부리지도 못하고 도리어 버리지도 못하고 절로 굶겨 죽이고자 하되, 여물 곧 아니 주면 저렇듯이 작난(作亂)하기로 마지 못하여 여물을 주어 먹이되, 멀리서 주어 먹이니 실로 민망하노라.” 생이 보기를 청한데, 노인이 생을 데리고 들어가 멀리서 가리키거늘, 생이 보니 그 말이 높기는 한 길이 넘고 눈이 푸르고, 몸이 가을 서리 같아 진시 비룡(飛龍)이라. (중략) 생이 웃고 말 머리에 나아서며 경계 왈, “너는 말이 청충마라, 어찌 해동 소대성을 보고 반기지 아니하는고?” 그 말이 눈을 들어 이윽히 보다가 곱을 허우적거리며 소리하여 응하는 듯하거늘, 그제야 대성이 나아가 갈기를 만져 금안(金鞍)을 지어 밖에 나서니, 말이 고개를 들고 청천을 바라며 구름을 헤치고자 하는 듯 기상이 혼연하거늘<sup>46)</sup>

이렇게 주인을 만난 청충마는 이후에도 충성을 다하여 소대성과 함께 전쟁을 치른다. 그런데 <소대성전>의 청충마 화소는 龍馬 설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용마 설화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장군들과 전쟁에서 생사를 같이 한 비범하고 충성스러운 말에 관련된 이야기로, 대개는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사나운 말을 이성계와 같은 비범한 장군이 잡아 타고 함께 전쟁터를 누볐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말들은 신이한 능력을 지녔으며 자기를 부린 사람에게 의리를 지키

45) 신혜진, 「완판 43장본 <소대성전> 해제 및 교주」, 『고전과해석』4,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08, 146면.

46) 이 장면은 경판에는 없거나 소략하고 완판본에 자세하다. 인용문은 신혜진의 교주본(「완판 43장본 <소대성전> 해제 및 교주」, 『고전과해석』4,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08, 207~8면.)을 인용한 것으로 필자가 고어 표기를 현대어로 바꾸었다.

고, 따라서 말의 주인들도 말의 死後 무덤을 만들고 제를 지내줄 정도로 말과 각별한 관계를 형성한다.<sup>47)</sup> <소대성전>에서는 설화보다 그 존재감이나 역할이 줄었지만 소대성과 청충마의 관계는 용마 설화에의 그것이라 할 수 있다.

<황주문생록>의 고래와 채봉의 관계 역시 용마 설화와 같은 신이한 말 이야기 전통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보인다. 설화 속 용마, 혹은 <소대성전>의 청충마와 같이 고래는 채봉의 ‘용마’ 역할을 하며 전쟁터를 누비는데 그 역할은 어떠한 영웅소설에서보다도 확장되어 있다. 고래의 능력은 용마의 능력을 훨씬 상회하며 북호와의 전쟁에서 그 능력이 십분 발휘된다. 적군에게 있어서 고래는 그 자체로 당해낼 재간이 없는 폭발적 성능의 무기인바 고래는 유채봉의 뛰어난 병법과 도술 못지않게 적군을 무찌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낸다. 그러한 까닭에 자신의 戰功에 대한 대가도 스스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채봉과 고래는 生死를 함께하며 전공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넘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한다. 충성을 다하는 신하와 그러한 충심과 능력을 알아주는 장군의 관계처럼, 고래는 목숨을 바쳐 채봉을 보좌하고 채봉은 그런 고래의 공을 잘 알아주며 고마운 마음을 담뱃 표현한다. 이러한 고래와 채봉의 관계는 인간 사회의 ‘충성’과 ‘신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생각하게 하며, 나아가 전통적으로 동물은 인간이 일방적으로 부리고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자적 존재임을 일깨워준다.

한편 전통적인 동물 서사를 토대로 하면서도 독특한 동물인 고래를 선택한 것은 오락성을 극대화하려는 서사 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래’라는 동물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장면, 거대한 몸집으로 바람과

47) 이상 말과 관련된 설화에 대한 내용은 안병국의 『龍馬 研究』(『은지논총』제30집, 은지학회, 2012)를 참조하였다. 안병국은 이 논문에서 설화에 등장한 용마에 대해 논의하며 용마와 장수는 “同氣로 感應되며 그 출생 역시 同時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논의하였다.

비를 관장하면서 전쟁터를 누비는 역동적이고 환상적인 장면은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작품 말미 전투에서의 고래의 활약을 직접 보지 못한 황제가 고래를 황궁에 불러 그 재주를 보여달라 하여 다시금 벌어지게 된 고래의 환상적인 묘기 장면은 신이한 동물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다분히 의식한 부분으로 보인다. 낯설고 신비로운 동물의 활약상은 다른 소설의 군담에서 보기 드문, 이 소설만의 특징적 부분이기에 소설의 작가 역시 이 지점을 강조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한다.

#### IV. 맺음말

본고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황주문생록>의 자료적 특징을 소개하고, 이 작품에 나타난 전대 소설과의 관련 양상과 이색적 동물담에 대해 살펴보았다. <황주문생록>은 물리적 분량에 비해 다양하고 많은 화소가 빠른 호흡으로 전개된 작품으로, 현전 유일 필사본의 여러 장면에서 축약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축약의 정도를 확실하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 현전하는 필사본은 모본을 축약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축약본이라 해도 이 작품은 그것대로 흥미로운 지점을 갖고 있었다. 애정소설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구운몽>의 남녀결연 화소, 상층여성 이 즐겨 읽었던 가문소설의 여성 형상, 여성영웅소설의 남북개척, 동성혼인 화소 등과 같이 다양한 소설 장르의 인상적인 요소들을 통속적인 방향으로 단순화시켜 취하고 있는 까닭에, 흥미롭지만 복잡하고 때론 문제적일 수 있는 요소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오락 거리가 되었다. 인물 형상이나 사건의 상황이 낯설지 않고 익숙한 것이기에 많은 독자들에게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을 터인데, 익숙한 것들과 함께 ‘고래’라는 이색적 동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신선한 미감도 더해졌다. 신이한 동물의 활약으로 환상적이고 역동적인 군담이 창출되면서 원만하게

읽히지만 뻔해질 수 있는 작품이 독특한 재미를 갖추게 된 것이다. <황주문생록>은 무엇보다 오락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창작된 소설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에는 세책본과 방각본이 활발하게 유통되면서 소설 시장의 규모가 획기적으로 넓어졌다.<sup>48)</sup> 그러면서 대중의 입맛을 돋우는 통속적이고 유흥성 강한 소설들이 많이 창작되거나 고소설에서 유사한 모티프가 빈번하게 출현하는 혼성모방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다.<sup>49)</sup> 소설이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기 시작하고 책 시장에서 소설의 수익성이 높아짐에 따라 특정집단 혹은 소수의 집단이 아닌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소설 제작이 이뤄지게 되고, 이때 대중 일반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 소설 제작자들에 의해 이뤄졌을 것이다. 「황주문생록」이 보여주는 창작 방식은 이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貞節, 忠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내포한 익숙한 화소, 여성영웅이나 동성혼과 같은 적당히 자극적인 화소들이 지루하지 않게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고래를 활용한 낯설고 신이한 장면들이 더해져 오락성 강한 대중소설로 소설 시장에 등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이 독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읽혀졌는지는 알 수 없다. 흥미성이 강조된 상업 소설로 창작되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관련 기록이 없고 작품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창작 의도와 달리 흥행에 실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작품에 관한 실증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무엇 하나 선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황주문생록>은 흥미성과 독자접근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창작된 소설로 조선 말기 소설 창작의 한 양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8) 이에 대해서는 정병설의 「조선후기 한글소설의 성장과 유통-세책과 방각을 중심으로」(『진단학보』 100호, 진단학회, 2005.), 주형예의 「매체와 서사의 연관성으로 본 19세기 대중소설 시장의 성격」(『고소설연구』 27집, 고소설학회, 2009.) 참조.

49) 주형예, 위의 논문, 203~4면.

## 참고문헌

- 『황주문생록』(박재연 외, 『장칠선전·황주문생록·나나봉전』, 학고방, 2013.)
- 『구운몽』(김만중, 정병설 역, 문학동네, 2013.)
- 『한국고전문학전집』(이현홍,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6)
- 『소대성전』(신혜진, 「완관 43장본 <소대성전> 해제 및 교주」, 『고전과 해석』4, 고전문학한문학회, 2008, 145~239면.)
- 『한국구비문학대계』(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 김재환 편저, 『한국서사문학과 동물』, 보고사, 2005.
- 김정숙, 『조선후기 재자가인소설과 통속적 한문소설』, 보고사, 2006.
- 박일용,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제인앤씨, 2008.
- 안기수, 『영웅소설의 수용과 변화』, 보고사, 2004
- 이상택 외 공저, 『한국 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 전성운, 『조선후기 장편국문소설의 조망』, 보고사, 2002.
- 전호태, 『울산 반구대암각화 연구』, 한림출판사, 2013
- 정병설, 『구운몽도』, 문학동네, 2010
- 조희웅, 『한국 고전소설 등장인물 사전』1,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 한길연, 『조선후기 대하소설의 다층적 세계』, 소명출판, 2009
- 강승목, 「<김희경전> 異本의 존재양상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3.
- 김종철, 「<옥루몽>의 대중성과 진지성」, 『한국학보』 61, 일지사, 1990, 22~46면.
-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12, 고소

- 설학회, 2001, 5~36면.
-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차이,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31, 민족문학사학회, 2006, 156~193면.
- 박희병, 「한문소설과 국문소설의 관련양상」, 『한국한문학연구』22, 한국한문학회, 1998, 13~42면.
- 송성옥, 「〈泉水石〉의 텍스트 결합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1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5~28면.
- 안병국, 「龍馬 研究」, 『온지논총』제30집, 온지학회, 2012, 71~106면.
- 이기대, 「고래의 문학적 형상에 대한 연구-이식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26집, 한국고전문학회, 2012, 213~246면.
- 이지하, 「18·9세기 여성중심적 소설과 여성인식의 다층적 면모」, 『고소설연구』 31집, 한국고소설학회, 2011, 111~144면.
- 임형택, 「전기소설의 연애주제와 <위경천전>」, 『동양학』22,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2, 25~47면.
-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제 19집, 2001, 207~235면.
- \_\_\_\_\_, 「조선후기 한글소설의 성장과 유통-세책과 방각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00호, 진단학회, 2005, 263-297면.
- 정준식, 「〈김희경전〉의 이본 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53, 어문연구학회, 2007, 237-278면.
- \_\_\_\_\_,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적 기반과 정착 과정」, 『한국문학논총』 61, 2012, 31~59면.
- 조혜란, 「조선후기 소설에 나타나는 유흥서술 연구」, 『한국고전연구』 3, 한국고전연구학회, 1997, 95-122면.
- 주형예, 「매체와 서사의 연관성으로 본 19세기 대중소설 시장의 성격」, 『고소설연구』 27집, 고소설학회, 2009, 201-229면.
- 채윤미, 「〈부장양문록〉 연구-여성인물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문, 2009.

\_\_\_\_\_, 「<천수석>에 나타난 영웅의 문체적 형상」, 『국문학연구』 제27호, 국문학회, 2013, 191~232면.

한의승, 「조선후기 재자가인소설 관련 논의의 비판적 검토와 전개 양상에 대한 시론」, 『인문과학연구』 38, 2013, 31~52면.

허순우, 「<소대성전>의 文體論的 研究」,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1.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features of  
〈Hwangjumoonsaengrok〉

Ko, Eun-im\* · Park, Jae-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aspects of form and content reflected on 〈Hwangjumoonsaengrok〉, which has yet to be subjected to a full scale study by the academic community after its initial publication in a series by Sunmoon University, and to discuss about the characteristic aspect of its narration. This literature, which is assumed to have been transcribed in 1920, has neither relevant record nor list of books bearing its title. It is difficult to get information on the creation of works, the period of enjoyment, and its readers because only a copy of manuscript has been handed down.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both the mean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terary work by focusing on its interior information. Firstly, this study paid its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that it had been transcribed as a way of condensing the original edition. It seemed that the contents of the original edition had not been fully put into this literary work in that it showed fast story development and was consisted of too many story units in contrast to the volume of the works, containing several omissions. Secondl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narrative features of the literary work by analyzing

---

\* Seoul National University

\*\* Sunmun University

how the story units of the various novels of previous genres were designed. Basically, this is a heroine novel on which each story unit is constructed in a popular way, showing the relevance with Romantic Fictions and Family novels. Lastly, the narrative story unit, so-called “whale story unit,” had been discussed. In this literary work, a whale which does not appear often in classical novels appears and builds a close relationship with a hero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hale and the heroine is similar to the relationship between “horse and general,” two main characters of “dragon horse” folk tale which have been traditionally handed down from ancient times. This literary work strengthened the entertainment of the work by narrating the mysterious and dynamic whale in an interesting way while appreciating traditional viewpoint of animals that recognizes animals as companions of humans.

Key Words : Hwangjumoonsaengrok, Heroine Novel, family saga, Romantic Fictions, The Cloud Dream of the Nine, Viewpoint of Animals, Whale, Dragan Horse Folklore

■ 논문접수 : 2014년 7월 14일

■ 심사완료 : 2014년 8월 29일

■ 게재확정 : 2014년 8월 30일